

Day n 일차

경제 지문 배경 지식 쌓기

수능 3 지문 중 한 지문에는 법/경제 지문이 나오는 게 암묵적인 룰이다. 법 지문이나 경제 지문은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의 위용을 갖는다. 특히 경제 지문은 '킬러' 지문으로 자주 나온다. 경제 지문은 배경지식에 따라 읽는 게 많이 달라진다. 3 일에 걸쳐서 배경지식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자.

오늘 보는 경제 지식에는 수능에 직접 출제된 요소는 없다. 다만 갑자기 나오면 당황할 지식들, 혹은 미리 보고 가면 좋은 개념들을 담았다.

-수요와 공급, 자유 시장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한다” _애덤 스미스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과 양에서 거래가 발생한다.

X재 시장에는 각각 5명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다.					
○ 소비자 D1~D5는 각각 X재를 1개만 구매하려고 하고, 각 소비자의 X재 1개당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표와 같다.					
소비자	D1	D2	D3	D4	D5
최대 지불 용의 금액(원)	20	30	40	50	60
○ 생산자 S1~S5는 각각 X재를 1개만 판매하려고 하고, 각 생산자의 X재 1개당 최소 요구 금액은 표와 같다.					
생산자	S1	S2	S3	S4	S5
최소 요구 금액(원)	10	20	30	40	50

잉여: 내리는 금액-낸 금액

총잉여: 모든 거래 참여자들의 잉여 합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총잉여가 최대가 된다. 외부의 간섭없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게 ‘자유 방임 시장’이다.

위 표에서 가격이 10 원이라 하면 소비자 D1~D5 는 내리는 금액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려할 것이다.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므로 가격이 증가한다. 그에 반해 가격이 50 원이 되면 사려는 사람은 D4, D5 2 명이고, 팔려는 사람은 S1~S5 5 명이므로 가격이 하락한다. (문제에서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구매 의사 가격과 거래 가격이 같으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위 보기에서는 가격 30~40 원 사이에서 3 개가 거래되며, 그때의 총잉여는 90 이 된다.

수요공급 그래프는 가로축이 양(Q, Quantity)이고 세로축이 가격(P, Prize)인 평면 위에 그린다. 원래 모양은 곡선인데 편의상 직선으로 그린다. 위 표를 그래프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에서 그래프 계산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고, 수요공급 그래프가 생긴 모습이랑, 어떨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래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면 좋다.

-자본주의의 변천, 시장 실패

위에서 본 애덤 스미스의 ‘시장이 알아서 한다’라는 생각을 골자로 한 사상이 ‘자유방임주의’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에는 1. 정보의 비대칭 2. 자본의 독점 3. 돈의 논리에 의한 인간성 말살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는 며칠 뒤에 조금 더 깊게 보자) 자본의 지나친 독점은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고 인간성 말살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 실패’라 부른다.

시장실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이다(철학 사상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돼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 문제 몇개 해결하자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이때 존 메이너드 케인스(1893~1946)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자본주의에 도입하는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고, 이런 형태의 자본주의를 수정이 됐다 해서 ‘수정자본주의’라 부른다. 수정자본주의는 기본형태의 자본주의보다 정부의 개입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수정자본주의에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며 정부의 개입을 다시 최소화하자라는 ‘신자유주의’ 학파가 일어났다.

-무역

나라 간에 무역이 생기는 원리가 뭘까?

(...)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생산해서 더 비싸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파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위에서 언급했던 애덤 스미스는 무역을 ‘싼 데서 생산해서 비싼 데 팔기’로 정의했다.

하지만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비교우위’란 걸 제시했고 오늘날에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비교우위

동일한 자동차와 폰만을 만드는 한국과 독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한국에선 자동차와 폰 생산가격이 각각 1000 만원과 50 만원이다.

독일에선 자동차와 폰 생산가격이 각각 1200 만원과 100 만원이다.

단위: 원	한국	독일
자동차 생산비	1000 만원	1200 만원
폰 생산비	50 만원	100 만원

자동차 생산비를 보자. 한국이 독일보다 더 적게 든다. 그럼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독일에 수출하면 될까? 단순히 보면 그렇지만 아니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자원이 무한정 있지 않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진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1000 만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팔면 200 만원이 남는다. 하지만 1000 만원을 가지고 폰을 만들어 팔면 500 만원이 남는다. 그럼 자동차는 독일에서 사오고 한국은 폰을 만들어 파는 게 이득이다. 이러한 원리를 ‘비교우위’라 부른다.

위 예에서 각국이 각각 1 억 2 천원치를 생산할 수 있다면 각자 상대방에 비해 손실을 감수하고도 잘 생산할 수 있는 걸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 한국은 1 억 2 천을 가지고 폰만 만들 때 젤 많이 남고 독일은 1 억 2 천을 가지고 자동차만 만드는 게 유리하다.

-무역 수지

무역을 통해 생긴 이득이나 손해를 ‘무역 수지’라고 표현한다. (수지맞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득이면 흑자라 부르고 손해면 적자라 부른다. 또 무역 수지가 전보다 좋아지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다고 부른다.

무역 수지에는 경상 수지와 비경상 수지가 있다. (경상이란 말은 정기적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경상 수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한 것이고, 비경상 수지는 금융 거래에 따른 손익이 주를 이룬다.

-화폐

화폐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자. 22 학년도 수능 경제 지문에서 이 내용이 잠깐 스치듯 나왔는데, 몰라도 상관없었지만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화폐는 상품의 거래 수단과 상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경제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선 화폐 자체가 상품의 거래 수단으로 탄생했다. 옛날 조개껍데기나 오늘날의 만원권은 그저 상품의 거래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화폐 주제에 상품성을 지니는 화폐도 있는데 금이나 은같은 귀금속들은 화폐로 사용되었지만 그 자체에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만원짜리를 만원어치의 물건을 주고 사지는 않지만 금화에 상응하는 양을 그 금화를 주고 사는 경우는 있었다. 화폐의 가치를 담보할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던 시절에는 거래의 신용을 보존하는 방법이 그 자체로 상품인 금화나 은화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폐라거나 예금 숫자는 그 자체로 뭘 의미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제 거래인 외환 시장에서는 종종 화폐가 상품처럼 여겨지곤 한다. 1 달러에 천원, 100 엔 하는 식으로 말이다.

[고전소설 공부법/ 자주 나오는 소재]

앞선 일차에서 고전 시가에 대해서 공부해봤으니 이번 일차에서는 고전 소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자. 오늘은 공부법/ 자주 나오는 소재를 보고 뒷쪽에서 용어와 빈출 유형 빨리 풀기를 공부해보자.

-공부법

사실 많이 할 게 없다. 애초에 고전소설은 수능 시험지에서 가장 쉬운 파트 중 하나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고전 소설 파트를 유독 어렵게 느낀다면 경험 부족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출 문제집에서 이제껏 나왔던 고전소설 문제를 싹 한번

풀어보는 게 좋다. 그리고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구운몽>이나 <춘향전>을 책을 사서 정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고전 소설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문제도 대부분 맞는다면 딱히 신경써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읽으면서 ‘딱딱하게’ 읽으면 안된다. 이야기 읽듯이 읽어야 한다. 동화나 좋아하는 책을 읽듯이. 현대시나 현대소설, 고전시가는 그 독특한 맛 때문에 그냥 쪽 읽어도 신경 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고전 소설을 편하게 읽고 편하게 문제 풀면 된다.

-자주 나오는 소재

고전 소설 많이 읽어서 ‘아,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느끼면 가장 좋다. 하지만 정리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공부하면 좋다.

-먼치킨물

Ex) 홍길동전, 전우치전, 박씨부인전

먼치킨이 나온다. 능력은 겁나게 비범하지만 환경의 제약을 받는 주인공이 환경을 몇 번 고난을 당하지만 이겨내고 해피엔딩한다는 결말

Comment) 대부분 유명한 것들이다.

-호걸물

영웅호걸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의 일대기를 그리는 형식이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서 고난을 좀 겪지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일부다처를 하다 보통 80 에 죽는다.

Ex) 조웅전

Comment) 기본 서사는 이런긴 한데 변종이 많다. 예를 들어 <구운몽>도 크게 보면 호걸물이라 할 수 있고 <유씨삼대록>도 바로 뒤에 나오는 가정물과 호걸물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가정물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드라마처럼 구성한 것. 그러다 보니 간혹 <사씨남정기>처럼 현실을 비판할 때 쓰이기도 한다. (사씨남정기는 저자 김만중이 당시 왕이었던 숙종의 행실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 사씨남정기, 유씨삼대록,

Comment) 그나마 제일 덜 쉽다. 지문에 가족들 이름이 고모, 손자, 하인, 하녀까지 우르르 나오다 보니 이거 헛갈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로맨스물

살짝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랑은 결이 다르지만 큰 줄거리는 같다. 남녀가 사랑에 빠진다. 시련이 온다. 시련을 극복한다. 잘 산다. 하지만 결말에 조금 변주를 주어 살짝 슬프게 끝나는 작품도 있다.

Ex) 속영낭자전, 춘향전

Comment) 주로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나, <최척전>처럼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 그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안하던 짓을 하면 주목하자는 얘기. 문제내기 좋다.

-우화물

우화란 동물이나 무정물(=사물. 동물이나 인간이 아닌 것)의 의인화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솝 우화를 생각하면 쉽다.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동물들이 행동보다는 주로 말로 한다. 또 돈이나 술 등을 내세운 '가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Ex) 국순전, 호질

Comment) 의인화로 드러내는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에 비해 쉬울 수밖에 없으니 당황하지 말고 읽으면 된다.

+가전: 사물을 전면에 내세운 우화물이다. 수능에 나올 만한 건 국순전(술의 단점을 비판), 국선생전(애는 국순전과는 달리 술을 예찬한 작품), 공방전(돈에 대한 이야기), 화왕전(꽃들이 말을 한다), 규중칠우쟁론기(규중칠우란, 여인의 7 가지 벗인 가정용품을 말한다. 애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이야기) 등이 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듯.

시간이 많은 고등학교 저학년 이하는 ebs 교재 중 <국어독해의 원리_고전소설편>을 공부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